

“근저당비 돌려줘” 4만명 소송

보상액 220억 규모 역대 최고...은행·생보사 ‘긴장’

4만여명이 넘는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서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이다.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승소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원을 훌쩍 넘는다. 금융 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자문 변호단을 통해 집단 소

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송 참여자의 비용을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올해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를 놓고 소비자 손을 들어주자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섰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조정했다. 근저당 설정비만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참여하려는 열기가 대단하다”면서 “은행들이 환급에 성

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식으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원에 신청한 소송자들은 대부분 근거 서류가 명확해 재판이 서둘러 진행돼 연내에 끝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승소 확률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시로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삼계탕값 “왜이리 비싸”

행안부 물가조사...1만2800원으로 전국 두번째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삼계탕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6월 전체 시도 개인서비스(외식비) 평균가격을 살펴본 결과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광주지역 삼계탕 가격이 1만2800원으로 서울(1만3091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비쌌으며, 전남이 1만2222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삼계탕 가격은 가격정보가 집계되기 시작한 9월부터 각각 200원(1.6%), 333원(2.8%) 오르면서 전국 평균 가격(1만1432원)

을 웃돌았다. 광주는 냉면과 비빔밥의 평균가격이 6400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지만 김치찌개는 5600원으로 200원(3.7%), 칼국수는 5200원으로 200원(3.8%) 상승했다. 전남은 김밥 평균가격이 3000원으로 480원(19.0%)나 치솟았으며 냉면은 6667원으로 223원(3.5%)이, 김치찌개도 5389원으로 222원(4.3%)이, 칼국수도 5722원으로 372원(6.9%) 올랐다.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 중에서는 광주가 세탁료(정장 드라이클리닝·

5800원)와 숙박료(여관·2만7400원)는 저렴한 편이었다. 전남은 숙박료가 3만8333원으로 서울(3만9091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으며, 이용료도 1만1111원으로 충남(1만1200원)과 함께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 농축산물의 경우 광주는 돼지고기(500g·9590원), 닭고기(1kg·4829원), 배추(1kg·809원)가 전국에서 가장 싼, 고추가루(100g·3360원), 쌀(20kg·4만6380원) 등도 저렴했다. 전남은 배추가 111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지만 감자(1kg·2956원), 콩(1kg·8983원)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난 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직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는 '아메리카노 프리데이' 행사를 백화점 지하 직원 쉼터에서 진행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새소리로 여는 ‘일할 맛’ 나는 하루

광주신세계, 사내방송 등 근무여건 개선

“우리 회사 일할 맛 나네요.” <주>광주신세계가 유통업계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한 시간 동

안 새소리, 계곡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쾌한 아침만들기’라는 사내 아침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아메리카노 프리

데이’ 행사를 열고, 협력업체 직원 등 전직원에게 1900여 잔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 노사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면서 지난 6월에는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은행 순익 51억 증가

시중은행들은 상반기 순익 1조원 감소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줄었지만 광주은행은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이 5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연체율 상승 등으로 하반기 전망이 밝지 않지만 광주은행은 하반기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3일 광주은행과 금융정보업체에

프랜차이즈에 따르면 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등 4대 금융지주와 기업, 외환은행 등 6개사의 상반기 순이익 추정치는 6조8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의 7조9541억원보다 14.6%(1조1000여억원)나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1조3000억원 이상 순이익을 거뒀던 외환은행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50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닌 쇼크’라고 할 만하다. KB금융도 같은 기간 순이익이 1조5749억원에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의 순이익 감소를 추정치는 각각 15~20%에 달한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 순이익이 815억원으로 전년동기(764억원)대비 6.7%(5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부실이 없었으며 자산건전성이 양호해 대손충당금(대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

‘한강의 기적’ 발판된 인력 수출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21>

나주 호남비료 유지 도민운동 ⑥

▲산업화 원동력이 된 인력 수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의 접점에 나주 호남비료가 있다. 나주 호남비료가 서독에 대한 차관 교섭을 촉발했고, 차관교섭이 계기가 돼 한국 광부와 간호사의 대독 인력 수출이 이뤄졌다.

진한 산업화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 근로자들은 한국 민족 특유의 겸손과 부지런함으로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이에 감동한 뒤브케 서독 대통령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 양국 간 인력 수출을 약속하며 이것이

확단지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 개발 전략은 5·16군사정권의 산업화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와 포함 제철,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로 실현됐고 제3공화국이 이끈 고도성장의 기반이 됐던 것이다. 따라서 서독 광부와 간호사의 피와 땀을 매개로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으며, 나주 호남비료는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됐다. 이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강조돼야 한다.

▲건설공사 가로막는 암초들 1961년 여름 공사가 재개된 나주 호남비료는 5·16군사정부의 재건 의지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소소한 토목공사부터 기계시설의 기술적인 문제까지 끊이지 않는 감리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기술진으로서의 무투기 축설계 결함 때문에 빚어진 시착오까지 더 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소비료 생산의 최종 단계인 조립탑의 경우 원래 철재관 설계가 일반적인 상식이었는 데 무투기축의 원설계는 콘크리트 시공으로 되어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우리 기술진은 원설계 전반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중간 오프상인 아이젠버그사의 농간임이 드러났다. 아이젠버그사는 우리 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은 과정에서 조립탑 건설에 관한 시방서 내용의 항목별 명시 없이 정상가로 발주를 받아 이윤을 쫓던 다음 투무기사에는 낮은 단가로 넘겼다. 이 때문에 투무기는 그 단계에 맞춰 조립탑을 콘크리트로 설계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술진으로서의 당연한 철재관 설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옳은 발견해내지 못했다. 더구나 이 조립탑은 완공 후 감리 과정에서 강도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부수고 다시 시공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우리 기술진의 후진성을 탓할 뿐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참조, 한강이 흐르는 ‘라인강의 기적’ KID출판사, 2001)



위중 (연문인)



귀하를 위한 품격있는 골프장

친환경 나비고장 합평에 오시면 사계절 양잔디, 한쪽의 수채화 같은 합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이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합평다이너스티CC에서
출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출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 합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 홀에 겁니다.
2.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3.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 하게 됩니다.
→10%는 차기 출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소득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4.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5.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시코스 20번 홀입니다.

진초록 양잔디 카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합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합평군 학교면 국왕리 산 1-6 예약전화: 061-7700-7777